

광주시, 외자유치 10년간 전국 꼴찌

총 2163억원...전체 0.16%
14위 전북의 5분의 1 수준
전남은 1조5934억원 11위
인센티브 강화 등 대책 마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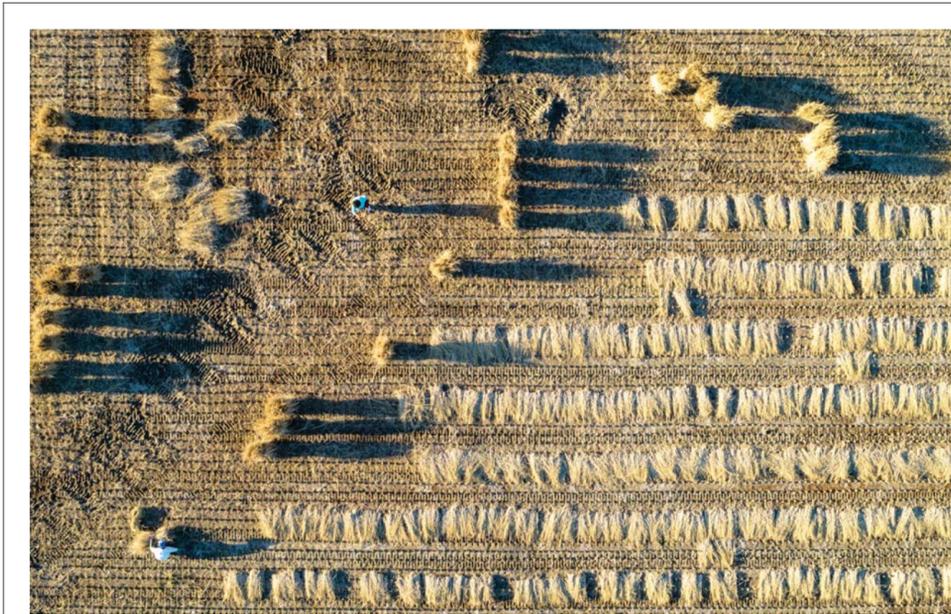
광주광역시외의 지난 10년간 외자유치 총액이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적으며 그 금액도 바로 앞 순위인 전북의 5분의 1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서구갑)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로부터 제출받아 제작성한 '각 시도별 외국인 투자도착금 현황'에 따르면, 광주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10년 동안 외국인으로부터 모두 2163억원(1억 9100만달러)을 투자 받았다.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투자금 127조5075억원의 0.16%에 불과한 금액이다. 또한 10년 총액 기준 투자유치액이 전국 17개 지자체 중 최하위인 세종에 이은 16위 기록이며, 광주의 투자유치액 규모는 14위인 전북 1조1268억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전국 외국인 투자 규모는 2008년 9조5152억에서 2017년 13조2570억으로 증가했지만, 광주는 오히려 최근 5년간 외국인 투자금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광주는 지난 2011년 90억6000만원(800만달러)에서 2010년 226억5000만원(2000만달러), 2011년 894억6750만원(7900만달러)으로 급증하다가 갑자기 투자세가 위축되면서 2012년 181억2000만원(1600만달러), 2014년 215억1750만원(1900만달러)의 투자를 받는데 그쳤다. 이후에도 감소세는 이어져 2017년 90억



농촌의 가을 해질녘 풍경

완연한 가을날씨를 보인 22일. 보성군 북내면의 한 논에서 농부가 수확을 마치고 남은 벼단을 정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6000만원(800만달러)으로 급감했고, 2018년 3분기까지 34억원(300만달러)에 그치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는 지난 10년간 1조5934억원(14억7000만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받았다. 이는 전체의 1.24%로 전국 11위 규모다. 전남도 역시 지난 2011년 3525억 750만원(3억1100만달러)으로 투자액이 정점을 찍었다가 매년 하락을 거듭하며 2016년 668억1750원(5900달러)까지 급감했다. 2017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서

1302억3750만원(1억1500만달러)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3분기까지 690억8250원(6100만달러)을 기록 중이다.

전국 17개 시도별로는 서울이 전체의 47%인 60조23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5조8210억원(12.4%), 인천 14조 3668억원(11.2%) 순이었다. 전국 전체 외국인투자금 중 수도권인 서울·인천·경기에 투자된 금액이 전체의 70%를 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이 극심했다.

송 의원은 "외국인 투자유치는 지역 경제를 평가할 때 매우 중요한 지표로, 수도권에만 투자가 집중되는 것은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지역에도 외국인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강화 등의 제도·재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자체 맞춤형 투자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역별 투자 유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이해찬 민주당 대표, '광주형 일자리' 노동계 설득 나선다

내일 광주서 예산정책협의회
광주시, 추가 질의 답변 연기

현대자동차와 광주시가 대주주로 참여하는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 사업'이 오는 24일 더불어민주당과 광주시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완성차 공장이 들어설 빛그린 산업단지를

방문하고, 지역노동계를 직접 만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22일 한국노총 광주전남 지역본부에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서 발송을 연기하고 지역노동계를 상대로 한 물밑 논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22일 "일자리 창출이 당정청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

혔다. <관련기사 3면> 이 자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 당정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지역노동계의 참여를 호소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시와 지역노동계의 의견을 조율하고, 절충하려고 노력하기로 하면서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 공문을 이번주 내지는 다음주 초에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시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광주형 일

지리의 성공을 위해 지역노동계와의 접점을 찾고자하는데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내는 것은 시가상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제3회 운동주서시문학상에 전동균 시인

수상작 '자정의 태양이라...'



기동인으로 참여했으며 권대웅·정팔별 등과 '신시정 7인 시집'을 발간했다. 시집으로 '오래 비어있는 길', '거룩한 허기', '우리처럼 낯선' 등이 있으며 서라벌문학상, 백석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광주일보와 계간 '시산맥'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3회 운동주서시문학상에 전동균(부산 동의대 교수·사진) 시인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자정의 태양이라 불렀던' 외 6편이며 상금은 1000만원.

<관련기사 16면> 운동주서시문학상은 지난 한 해 각종 문예지에 좋은 작품을 발표하고 작가로서의 자존감을 잃지 않은 시인을 대상으로 심의위원들(위원장 이성렬 시인)이 27월에 걸쳐 심의해 후보를 추천했다.

본심을 맡은 최문자·송찬호 시인, 유성호 평론가는 "이번에 수상작이 된 작품들은 그 특유의 감각적 선명성과 정신적 열도(熱度)를 느끼게 해주는 가변들"이라며 "어둡고 쓸쓸한 현실을 넘어 존재의 심층을 강렬하게 감싸안은 시인의 성정이 느껴지는 결실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운동주서시문학상 수상자인 전동균(56) 시인은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와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했으며 1986년 '이시' 외 4편으로 소설문학사 제정 신인작품상에 당선됐다. 이후 김기택·이홍섭·장석남 등과 함께 '시운동' 2

회 시인으로서 시해외작가 특별상에는 캐나다 중앙일보 객원설위원을 지냈으며 캐나다 문화예술공로상, 한국문학계 계화추진운동본부 문학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유식(77) 시인이 수상자로 결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1일 오후 5시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된다. 문의 010-8894-872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 환자 절반 타시·도 병원 유출

광주·서울 등으로 ... 시군별 의료서비스 격차 심각

전남지역 수술 입원환자 절반가량이 타시·도 병원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남도내 시·군별 의료서비스 격차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1)이 도정질문에서 공개한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응급환자 수는 2011년 38만 2678명에서 2016년 50만5255명으로, 6년새 32% 증가했다. 이 기간동안 연평균 5.3%씩 응급환자가 늘어난 셈이다.

반면 수술 입원환자를 지역 내에서 치료하는 '자체 충족률'은 전남지역이 54.8%로, 경북(54.2%) 다음으로 전국에서 낮았다. 이는 전남지역 환자 2명 중 1명(45.2%)은 타지역 병원으로 입원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남도내 시·군별 수술 입원환자 자체 충족률도 인근 대도시로 쏠렸다. 2016년 시군별 자체 충족률은 순천이 68.8%로 가장 높았고, 이어 목포 65.4%, 여수 58.0%였다. 이들 3개 시는 자체 충족률

이 50%를 웃돌았다. 화순(36.2%)·영광(33.7%)은 30%대, 나머지 시·군은 30%대를 밑돌았다. 특히 신안(0.4%)·함평(1.1%)·곡성(1.6%)은 1%에 그쳐 입원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전무하다시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원환자의 유출 최종 목적지는 광주·목포·순천 등 인근 대도시였다.

신안이 목포로 가는 경우가 55.8%로 가장 높았고, 무안(43.6%)·영암(34.5%)·진도(31.7%)지역도 목포시로 입원환자가 몰렸다. 구례(27.4%)·보성(20.5%)·고흥(17.9%)지역은 순천으로 쏠렸고, 시 단위인 광양지역도 순천으로 34.9%가 유출됐다.

특히 혁신도시 조성으로 도시가 급성장하고 있는 나주의 경우 54.8%가 광주에 있는 병원으로 입원환자가 유출됐다. 광주 인근 담양(58.9%)·장성(53.3%)·곡성(48.1%)도 광주로의 유출이 심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Sulwhasoo

어떤 각도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주름이 생긴 것도 아닌데, 왜 나이 들어 보일까요?
주름, 기미, 잡티는 쉽게 가릴 수 있지만, 힘 없이 처진 얼굴탄력은 숨길 수 없죠
뿌리부터 인까지 인삼에너지를 담은 캡슐에센스가 약해진 탄력 지지 구조를 강화해주는 자음생에센스-
이제, 시간의 흐름과 외부 자극에도 흔들림 없이 탄력각을 세우세요

*설화수, 플레그시스트어 및 전국 백화점,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플레그시스트어: 02-541-9270 •고객상담실: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